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식품



목 차

1. 산업동향 • 1

- 1.1 국내 시장 동향 • 1
- 1.2 산업경쟁력 • 3
- 1.3 국내 유망분야 • 6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7

- 2.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7
- 2.2 주요 외투기업 성공사례 • 8

3. 정책·입지 • 10

- 3.1 주요 정책 및 인센티브 • 10
- 3.2 주요 입지 • 12

4. 잠재파트너 • 16

- 4.1 관련 기업리스트 • 16
- 4.2 관련 협회 • 17

* 동 보고서 상 수치는 원화(KRW)에서 달러화(USD)로 연도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변환되었음. 단, 연평균 성장률을 설명하는 경우, 성장률 왜곡 방지를 위해 최근년도 평균환율로 환산됨.

* 환산한 금액은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으나,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올림이나 버림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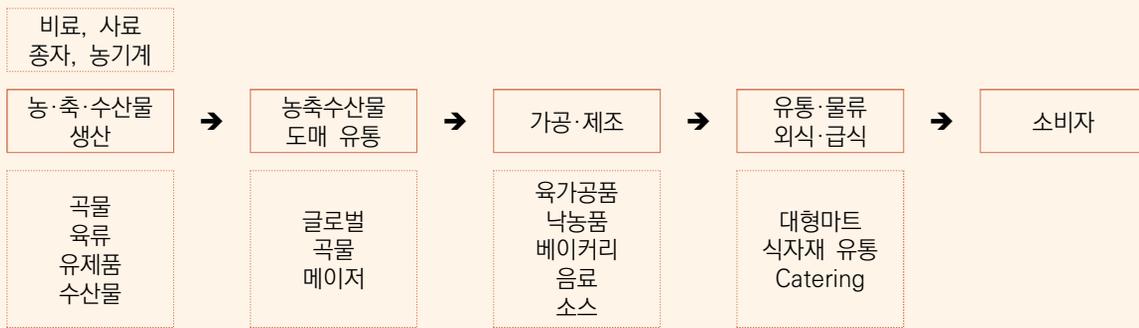


1 산업동향

산업 정의

- (식품의 정의) 영양소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천연물 혹은 가공품으로 제조업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공공정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 ※ 식품의 법적 정의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혹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
- (식품산업의 정의) 산업적 관점에서 식품산업은 농축수산물 및 그의 가공품을 토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식품을 가공·조제하는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
-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후방에 식재료 공급 및 투입물 산업이 위치하며, 전방에 제조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물류 및 외식산업이 위치

【 식품산업 가치사슬 (value chain) 구조 】



1.1 국내 시장 동향

- ▶ 한국 식품산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가계 소비지출 확대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
 - 2017년 기준 한국 식품산업의 생산 규모는 794.98달러로 제조업 생산의 5.9% 수준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에 비해 사업체 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모두 빠르게 확대 중
 - 2007년 이후 한국 식품산업은 연평균 6.4%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평균 성장률 4.8%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세 기록
 - 식품산업 사업체는 2017년 기준 5,481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7.9%로 조사되었으며,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7.3% 수준
 - 제조업 전체의 사업체 수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진출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 특성을 반영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수 비중이 생산액 비중에 비해 더 큰 이유는 한국 식품산업 기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영위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

- 식품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기준 37.4%로 제조업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5.6%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액의 성장 추세보다는 다소 낮지만 제조업 전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식품산업 주요 지표

(단위: 개, 백만 달러, %)

		2007	2012	2017	CAGR ('07→'17)
사업체수	개	4,257	4,423	5,481	2.6
	제조업 대비 비중	6.9	6.9	7.9	
생산액	백만 달러	42,823	66,756	79,496	6.4
	제조업 대비 비중	5.1	5.0	5.9	
부가가치	백만 달러	17,219	23,071	29,697	5.6
	제조업 대비 비중	5.9	5.4	6.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2017년 기준 식품산업의 종사자 수는 21.7만 명 규모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
 - 사업체 당 고용 규모는 39.6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42.5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업체 당 평균 급여도 제조업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파악

식품산업 고용 동향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4	2016	2017	
제조업	2,507,598	2,452,880	2,694,782	2,904,914	2,957,917	2,954,811	
식품	163,236	166,538	176,729	194,954	211,568	216,998	
	식료품	149,758	153,429	163,602	181,377	195,940	201,350
	음료	13,478	13,109	13,127	13,577	15,628	15,648
제조업 대비 비중	6.5	6.8	6.6	6.7	7.2	7.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당 고용자수 및 급여액 수준

(단위: 명,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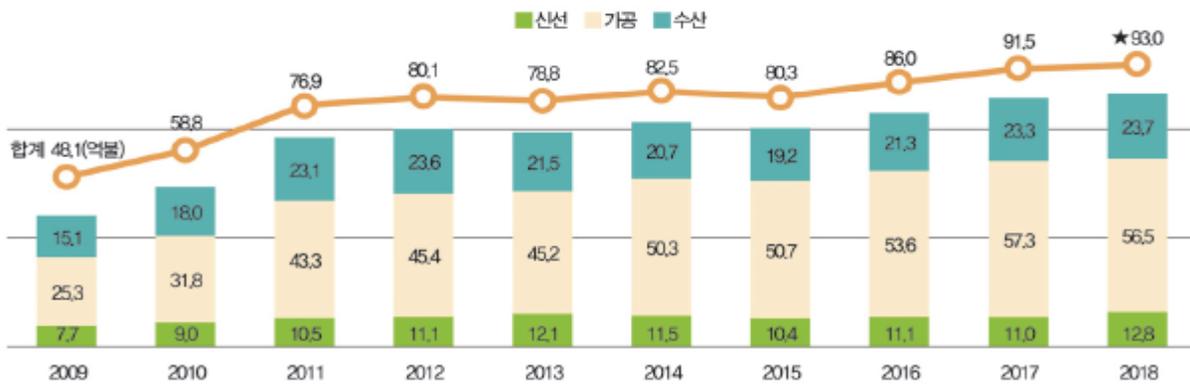
구분	고용자수		사업체당 총 급여액	
	제조업	식품	제조업	식품
2007	40.6	38.3	104	75
2017	42.5	39.6	164	10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2018년 기준 한국 식품산업(가공식품) 수출 규모는 56.5억 달러로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신선 농수산물식품을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 규모는 93.0억 달러)
 - (품목별) 면류, 과자류, 주류 및 커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추세
 - 2018년 기준 면류의 수출 규모는 약 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
 - 과자류의 수출 증가 추세는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인해 다소 정체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의 수출 호조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

- 음료는 한류 등의 인기에 따라 최근 아세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주류는 전통적 주력시장인 일본에서 수요가 감소했으나 중국 및 아세안시장에서의 호조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

가공식품 수출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국가별) 중국 및 아세안 등 신흥국에서의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 확대
 - 일본은 전통적 주력 수출품인 주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라면, 김치, 참치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약보합세를 유지
 - 그동안 중국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던 라면, 김, 과자류의 수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주류, 유제품 및 음료 제품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중
 - 새로운 주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시장은 라면, 커피조제품, 과자류, 음료 등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일본	미국	중국	ASEAN	홍콩	대만	EU
2017	1,060.2	570.5	811.7	1,066.2	258.9	198.7	421.7
2018	1,053.8	598.3	900.9	1,103.2	279.4	180.3	373.2
증감률	-0.6	4.9	11.0	3.5	7.9	-9.3	-1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 가공식품 기준

1.2 산업경쟁력

- ▶ (기술수준) 주요 농식품 선진국에 비해 농생명 및 식품 엔지니어링 등의 경쟁력은 기술 선도국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
 -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에 따라 해외 식품 인증 및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 되면서 가공식품 조리 기술이 크게 발전
 -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건조분말 기술이 상용화되었으며, 나노융합기술 발달에 따라 생물고분자를 활용한 나노캡슐화 기술 등이 개발되는 등 식품공학 기술이 점차 향상

- 개인 유전자 특성 및 만성질환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 미래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

주요국의 농식품 기술 경쟁력 수준(2018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중국	한국
식품공학	96.1	92.5	91.3	100	70.8	77.0
식품영양	100	87.2	85.9	94.4	75.5	76.5
위생안전	100	91.2	92.2	89.8	67.5	76.3
식품조리	100	96.1	94.6	99.3	74.8	85.0
농생명신소재	100	89.6	90.6	97.4	77.1	77.3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8),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성장성)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식품산업의 성장성은 안정적 기초를 유지

- 2017년 기준 식품(식료품+음료)산업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식료품 3.45%, 음료 6.02%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식품산업의 성장성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제조업	총자산 증가율	4.04	5.07	6.49
	매출액 증가율	-2.82	-0.55	9.01
식료품제조업	총자산 증가율	7.86	6.18	12.51
	매출액 증가율	5.18	5.46	3.45
음료제조업	총자산 증가율	4.52	3.05	-1.48
	매출액 증가율	3.91	0.42	6.0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생산성) 식품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 및 부가가치율은 제조업 평균을 다소 하회

- 2017년 기준 식료품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19.97%로 제조업 평균 수준인 20.8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장치산업 특성이 강한 음료제조업은 21.41%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율도 식료품제조업은 다소 낮은 반면, 음료제조업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음료제조업의 수익창출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산업의 생산성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	19.5	19.5	20.9
	부가가치율	24.0	25.6	26.5
식료품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	21.5	21.6	20.0
	부가가치율	21.0	21.4	20.9
음료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	21.1	20.7	21.4
	부가가치율	35.0	35.6	35.4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가치사슬) 전통적 내수산업이지만 최근 중국 등 아세안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 최적화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있는 추세

- 원재료 조달, 물류 및 생산비용 감소, 수출시장 진출 등 품목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
 - 내수산업의 특성 상 신제품 개발 및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에서 수행
 - 대부분의 가치사슬 내 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재료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 부재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 최근 중국,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을 목표로 한 수출 상품 개발이 증가되면서 신제품 개발 역량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주요 원소재의 국산 비중(2017년)

품목	옥수수	밀가루	고춧가루	전지분유	감자전분	대두유
국산비중 (%)	0.2	1.1	44.0	14.1	3.6	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2018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가치사슬 운용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해외생산의 증가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가 높은 중국 및 ASEAN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M&A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증가
 - 해외에서 수요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을 통한 현지화가 빠르게 확산
 - 가치사슬 전체를 이동시켜 적극적 현지화를 단행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일부 분야만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별 기업 및 품목에 맞게 다양하게 해외 진출을 추진
- ▶ (글로벌 위상) 한국 식품시장은 2019년 1,287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글로벌 식품시장의 1.9% 수준이나, 최근 중국 및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 성장과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
 - 글로벌 식품시장은 경기 방어적 특성이 강한 식품의 특성으로 안정적 기초 하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기준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는 약 6.9조 달러이며, 2021년까지 약 7.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산업 성숙기에 접어든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 달리 신흥 개도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등의 경우 경제발전 에 따른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전체 식품시장의 성장을 견인
 - 내수시장 크기가 산업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 상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낮은 편이며 연평균 3% 이내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
 - 그러나 최근 동남아 및 중화권 시장에서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와 지정학적 입지의 장점을 바탕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외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한국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적극적 해소 노력, 자유무역협정 확대, 해외기업과의 적극적 제휴 확대 등을 토대로 내수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

글로벌 식품시장 동향과 한국 위상(2017년)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6,097.8	6,128.4	6,351.5	6,669.1	6,907.8	7,149.9
유럽	1,972.7	1,950.2	2,016.1	2,125.4	2,171.4	2,215.4
아시아·태평양	2,112.2	2,166.3	2,248.4	2,380.0	2,504.4	2,637.4
중국	1,158.3	1,150.1	1,198.3	1,280.5	1,359.5	1,448.1
일본	354.6	395.4	387.5	398.4	407.2	414.4
한국	104.3	108.0	116.7	123.1	128.7	133.9
북미	1,266.7	1,297.3	1,328.8	1,368.3	1,406.2	1,442.0
미국	1,136.8	1,167.4	1,192.9	1,224.8	1,258.3	1,290.1
중남미	580.2	551.8	597.7	624.9	646.9	667.9
중동·아프리카	166.0	162.8	160.5	170.5	178.8	18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8 식품산업 주요 통계”

1.3 국내 유망분야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및 무자녀 가구 수 증가 등으로 간편식, 즉석식품, 가공식품, 소포장 식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전반적인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 외식물가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체재로서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 가공식품업체의 신규 HMR 출시가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

- 1인 가구 증대 등에 따른 간편식, 소포장 식품, 즉석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신제품 공급과 유통 채널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 1인 가구 비중 전망: 2019년 29.6% → 2022년 3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7년 기준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1.7% 성장하였으며 편의점 채널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빠르게 확산

- 편의점을 통한 HMR 판매 비중은 2015년 15.2%에서 2017년 18.1%로 증가 (이용선 (2018), “2019 식품산업 전망”, 2019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발표자료)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이 밝은 편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30년 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 및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식품 등 고기능성식품으로 전망

고령친화식품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단위: %)

성장 가능성이 없음	성장 가능성이 낮음	보통	성장 가능성이 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0.0	5.0	17.5	65.0	1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 식품제조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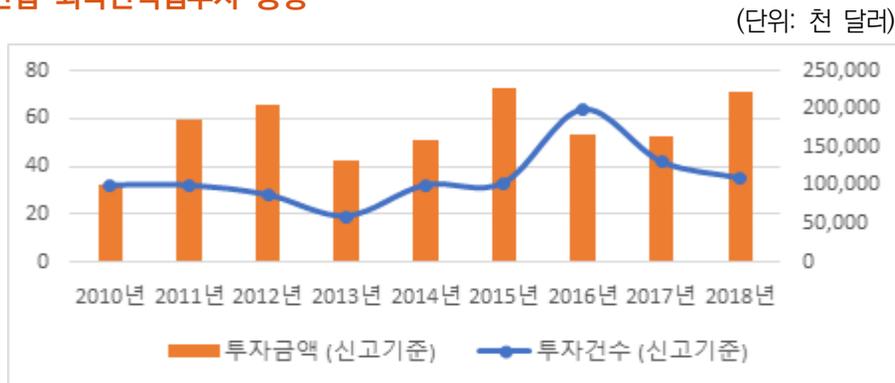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010년~2018년 기간 중 식품산업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총 317건, 금액은 약 15.6억 달러

- 2016년 총 64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 반면,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추세인데 이는 투자건수 당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시사

국내 식품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대비 식품산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5.2	5.3	5.1	4.2	6.4	6.0	11.9	7.6	6.7
금액	1.5	3.3	3.4	2.9	2.1	5.0	3.3	2.3	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2018년 현재 신고건수 기준 6.7%이며 신고금액 기준은 2.2% 수준

- 투자금액에 비해 투자건수가 많은 것은 영세규모인 식품산업의 특징을 시사
- 건당 투자금액은 2018년 기준 약 635만 달러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인 1천 9백만 달러 대비 1/3 수준 규모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당 투자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0.9	9.3	10.8	10.2	15.1	8.3	9.3	13.2	19.3
식품	3.1	5.8	7.3	7.0	5.0	6.9	2.6	3.9	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 ▶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건수 기준으로는 아시아지역,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유럽**
 -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총 178건으로 동기간 전체 식품산업 투자 건수의 56%를 차지
 - 같은 기간 유입된 총 투자금액은 약 4억 달러로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당 투자규모가 적은 편
 - 유럽지역에서 유입된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전체 식품산업의 21% 수준인 66건에 불과하나, 전체 유입 규모는 7.7억 달러로 식품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 수준

국내 식품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별 유입 동향(2010~2018 누적)

(단위: 건수, 천 달러)

구분	미주	아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건수	68	178	66	2	2
금액	384,186	399,757	765,155	5,050	7,920
건당 금액	5,650	2,246	11,593	2,525	3,9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2.2 주요 외투기업 성공사례

- ▶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와 신세계의 합작 법인(지분을 각각 50% 보유)으로 스타벅스 진출 국가 중 대표적 성공 사례**
 - 1999년 이대에 1호점을 오픈한 이래 2016년 매출 규모 8.6억 달러 이상 달성하였으며, 2018년 매출 및 이익 수준은 2017년 대비 각각 20%와 24.8% 증가
 -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시장을 장악한 요인은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평가
 - 쾌적한 매장, 편안한 의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며,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여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출점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점포 오픈에 유리
 - * 국내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한 맞춤형 전략과 신세계그룹 차원의 유통 노하우, 직영점 운영 방식 등이 성공요인으로 평가
 - 스타벅스는 커피 이외에도 베이커리, 케이크, 샐러드, 스낵 등 적극적인 메뉴 현지화를 추진
 - * 스타벅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운데 70% 이상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음료
 - 제철 식재료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즌 메뉴도 출시
- ▶ **(로얄캐닌코리아) 196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뒤 2001년 미국 Mars Chocolat France SAS에 인수된 로얄캐닌코리아(Royal Canin Korea)는 펫푸드(Pet Food) 제조업 기업**
 - 현재 가동 중인 전북 김제 공장에서 생산량의 80% 이상을 인근의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증액 투자
 - 애완동물 사료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2018년 3월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 로얄캐닌은 기존 사료공장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했으며, 김제공장을 인근 국가 수출을 위한 아시아 허브로 키우려는 의도로 진행

-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2014년부터 약 77백만 달러를 들여 지어졌으며 74개 신규 일자리 창출
 - 향후 생산라인 3개가 증설되면 추가로 15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도내 기업과의 닭고기, 쌀 원료 공급, 물류창고 사용 등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친화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생산량의 80% 이상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전북의 수출 실적에 기여

▶ **(코아바이오) 발효음료 제조사인 (주)코아바이오는 러시아기업의 자본투자와 미국기업(캐피탈 콤부차)의 기술투자를 통해 설립**

- 중국 및 동북아시아 발효음료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설비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 지역에 건립할 예정 (23,140m², 총 450만 달러 규모)
 - 최근 미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발효음료를 중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수출하여 지역 내 시장을 선점할 계획으로 투자
 - 유통기한 확대를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캐피탈콤부차”와 기술 협약 체결
 - * 통상 1달 정도인 발효음료의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첫 외투기업으로 발효음료인 콤부차를 한국 시장에 출시
 - 콤부차의 전통 제조방식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함께 발효공정을 확립 후 첨단시설에서 본격적인 생산 시작
 - (주)코아바이오는 고려대학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함께 1차 발효만 하는 기존 콤부차와 달리 4단계 발효를 거쳐 유해물질 배출을 돕는 기능성 성분인 글루쿠론산과 유해물질 생성 억제 성분인 DSL(D-saccharic acid-1, 4-lactone)* 함량이 증진된 콤부차 제조공법을 확립
 - * 유해물질 배출을 돕는 기능성 성분인 글루쿠론산과 유해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성 성분
 - 관련 기술은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 (주)코아바이오는 미국 등 해외에서 더 유명한 발효음료를 국내 우수 유기농 농산물인 제주산 녹차와 4단계 발효공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시켰으며,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건강음료시장에 진출

주요 외국계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

국가	모기업명	국내기업명	소재지	생산품목	국내 종업원 수(명)*
미국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서울	커피 전문점	14,846
미국	코카콜라	코카콜라음료(주)	경남양산	음료	2,333
스위스	네슬레	롯데네슬레코리아(주)	충북청주	커피, 사료, 유제품	478
미국	Dole Food	(유)돌코리아	서울	과일가공식품	93
미국	Del Monte Foods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	서울	음료, 청과 도소매	75
미국	Coffee Bean	(주)커피빈코리아	서울	커피전문점	1,715
미국	Mars	한국마즈(유)	서울	초콜릿, 스낵, 사료	72
일본	아사히	(주)롯데아사히주류	서울	주류	228
네덜란드	하이네켄	하이네켄코리아(주)	서울	주류	156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aTFIS)

주: 국내 종업원 수는 2018년 기준

3 정책·입지

3.1 주요 정책 및 인센티브

-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
 -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
 -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 표준을 마련하고 품질유지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
 - 기능성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시장 창출을 촉진
 -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를 집중 추진
 -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
 - 식품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60개 이상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정주여건 및 기술애로 해소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
 - 푸드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
 - R&D 기반의 혁신적 식품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 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을 발굴
 - 농식품 R&D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R&D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 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내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 센터를 통해 식품기업 육성 및 지원**
 - 식품 품질 및 위생 심층역량 제고(aT 식품기업컨설팅부)
 - 국산 원료 사용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안전 및 품질 개선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지원 분야별 컨설팅 비용 및 실행비용의 50~60% 지원
 - 유기(organic)식품 생산·소비 활성화 지원(aT 식품기업컨설팅부)
 - 유기식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인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 등 판로개척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식품전문 박람회 홍보관 운영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aT 식품외식기획부)
 - 국내 식품기업 인턴십 지원 (전국 권역의 청년 100명 내외)
 - 식품산업 취창업 일자리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전국권역 대학생 700여명)
 - 식품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수출확대지원 컨설팅(aT 수출기업육성부)
 -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 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 (수출 초보기업 및 시장 다변화 기업의 컨설팅 비용을 80% 한도로 지원)

- 수출 실무(금융/보험, 라벨링·포장, 검역·통관, 물류, 해외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정액 지원
- FTA 수출(원산지 판정 및 증명, 원산지 인증 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정액 지원
- 현지화지원사업(aT 수출 정보부)
 -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 통관 애로 해소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 각 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비관세장벽해소: 현지법률, 제도(계약, 관세 등) 관련 애로 해소
 - 라벨링지원: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 지원 및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검사 지원
 - 상표권출원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 포장패키지현지화 지원: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원 사업 추진**
 - TV홈쇼핑 입점 지원
 -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기업으로 홈쇼핑 방송 판매 기준에 적합한 상품보유기업 대상
 - 상품기획 및 인서트 영상제작 등 홈쇼핑방송 송출 지원
 - 3만 달러 × 6개사 (자부담 25% 이상)
 - 물류 마케팅 지원
 - 입주기업 및 분양 체결 기업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 물류관리시스템, 운송(검역·통관·샘플 및 운송), 시장 준비(특허, 인증, 브랜드 개발 등), 거래선 발굴(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바이어 초청 등)에 대한 지원
 - 기업 당 2만 달러 지원 (지원금:자부담 = 75%:25%)
 - 해외통합마케팅사업
 - 해당국 수입법률, 통관검역이슈, 현지식문화 등 수출국 정보 제공, 수출통관신고 등 무역 실무 교육
 - 해외유통 입점, 현지언론 제품 소개 등 판촉·홍보 지원
 - 기업 당 4만 달러 지원 (자부담률 25%)
 - 박람회 부스 운영
 - 국내식품박람회에 16개사, 해외식품박람회에 9개사를 지원
 - (국내) 공공기관이 위치하는 정책관 세션이 아닌 일반식품전시관에 푸드마켓 형식의 부스를 운영하여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기회를 제공
 - (해외) aT와 협업을 통한 분양기업 공동부스 운영으로 분양기업의 제품 홍보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수출기회를 제공
 - 국내식품박람회에 총 29만 달러, 해외식품박람회에 총 10만 달러를 지원
 - 전시 판매 지원
 - 입주기업 중 전시·판매를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MD 초청교육, 품평회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
 - 5개사를 대상으로 5천 달러 지원 (자부담 25% 이상)

○ (투자인센티브) 식품산업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전라북도·익산시에서는 전제조건* 충족 시 투자 보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 전제조건: ① 기업과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 선행,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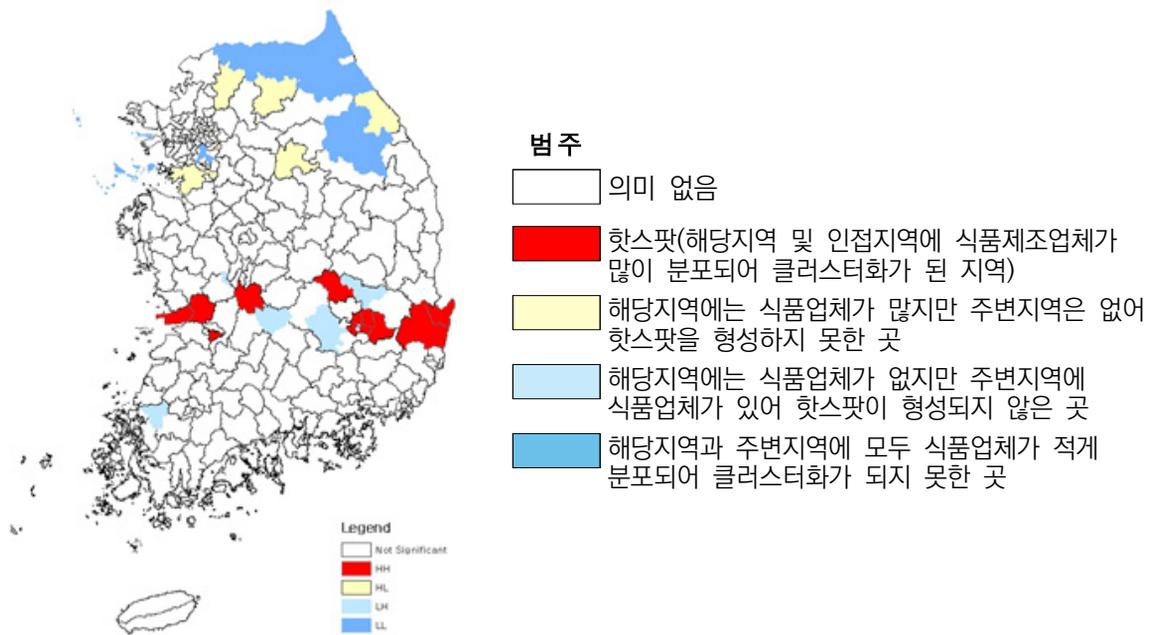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투자 보조금	대규모 투자	전북도: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9백만 달러 익산시: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9백만 달러
	일반 투자	전북도: 투자금액 90만 달러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4.5백만 달러 익산시: 투자금액 90만 달러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4.5백만 달러
고용 보조금	전북도	1인당 월 454달러, 6개월 범위, 기업 당 45만 달러
	익산시	1인당 월 545달러, 6개월 범위, 기업 당 18만 달러
교육훈련 보조금	전북도	1인당 90달러~454달러까지 6개월 범위, 기업 당 45만 달러
	익산시	1인당 월 90달러씩 최대 3년간
근로자 정착 보조금	전북도	1인당 월 90달러씩 최대 3년간
물류센터 건립지원	익산시	투자금액 27백만 달러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90만 달러
중소기업 지원		시설·운전자금(전북도), 시장개척·마케팅활동비(익산시)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3.2 주요 입지

▶ (식품산업 일반 입지현황)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큰 입지 특성을 지닌 식품 제조업의 성격 상 원재료의 확보가 유리한 지역에 집중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의 입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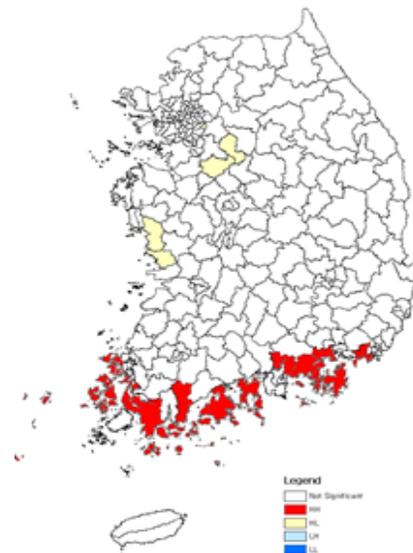
자료: 김영수 외 (2014)

- 식품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한 입지 분석 결과, 군산-익산-전주 지역, 구미-경산-대구 지역, 경주-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식품제조업체가 입지
- 원료 수급과 관련한 입지 특성뿐만 아니라 수요지역 인접성도 식품제조업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기·인천·강원 등의 지역에 다수의 식품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세부 식품제조업 별 입지 현황은 원재료 수급 및 수요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분포
 - 해당 분야 유력 대기업이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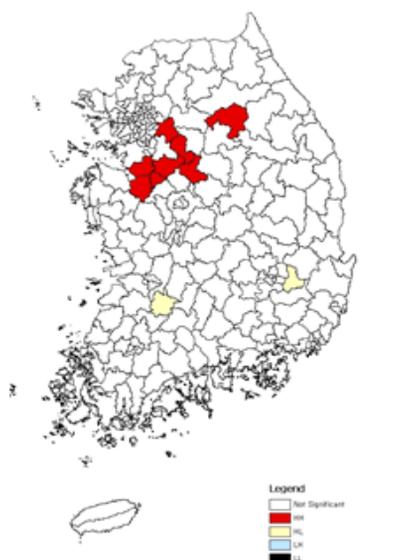
주요 세부 식품제조업체의 입지 현황



[육류가공업]



[수산물가공업]



[유가공업]



[음료제조업]

자료: 김영수 외 (2014)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단위의 식품클러스터 조성(2017.12)

-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전북 익산에 식품산업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최상의 교통·물류와 용수 공급, IT 및 녹색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식품산업단지로 조성
 - 국토 공간 상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 중이며 반경 50km 이내에 새만금 간척지, 전주 혁신도시, 대덕 연구단지 등이 위치
 - 행정·업무기능(세종시), 생산·물류기능(새만금 간척지), 연구·교육기능(전주혁신도시)과 연계되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 (입지여건)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센터 구축, 식품 제조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입주 기업의 물류를 지원할 종합물류회사를 선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 체계 구축하고 국가 주요 도로망, 철도망, 항공, 항만 등을 모두 갖춘 입지적 강점 보유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한 익산 인근 지역에 대덕연구단지, 세종정부청사, 전주에 위치한 6개 과학 R&D 기관 등과 긴밀한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산학공동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식품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입주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식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및 식품연관업종이 주요 입주 대상
 - 다양한 식품기업군은 대상으로 하며, ①기능성·바이오식품 등 첨단 융합식품, ②발효식품, ③식품첨가물 등 소재, ④쌀 등 가공식품, ⑤기호식품 등을 '5대 전략식품'으로 집중 육성
- (토지이용계획) 식품산업전문단지 는 토지용도에 따라 산업시설, R&D단지, 기업지원시설, 테마파크, 기타 등 5개 권역으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기업수	유치업종	
산업시설권역	전략식품존 (집중육성)	350천m ²	50	- 기능성·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합식품, 발효식품 - 식품첨가물, 설탕, 전분 등 소재식품, 식자재, 편이식품, 쌀 가공식품, 기호식품
	글로벌 식품기업존 (외국인투자지역)	450천m ²	30	-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지역
	물류유통존	100천m ²	5	- 물류·집배송 관련 업종 - 유통(운반) 관련 업종 - 보관(저온 및 냉동저장) 등
	일반식품존 (지역식품 특화단지 등)	500천m ²	50	- 제빵, 제과류, 면류, 음료, 일반주류 - 육가공, 유가공, 수산 가공류
	식품연관산업존	100천m ²	15	- 포장·용기류 - 음식료품 가공기계류 -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류
식품 R&D 권역	54천m ²	10	- 민간연구소, 기업, 대학 부설 연구소 등	
기업지원시설 권역	94천m ²	6	- 식품기능성, 안전성, 패키징 센터 -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지원센터	
테마파크 권역	244천m ²	-	- 공원, 글로벌 테마파크, 저수지 등	
이주단지 등 기타권역	413천m ²	-	- 이주택지, 오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 도로, 녹지 등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 (산업시설권역) 주요 업종 및 입주 기업 성격에 따라 전략식품존, 글로벌식품기업존, 물류유통존, 일반식품존 등 5개 Zone으로 구분
- (R&D권역) 산업시설권역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국내외 식품연구소와 기업·대학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식품기업의 혁신을 주도

산업시설권역 및 R&D권역 입지 계획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4 잠재파트너

4.1 관련 기업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CJ 제일제당(주)	설탕, 육가공품, 즉석식품 등	www.cj.co.kr	서울
롯데칠성음료(주)	음료	company.lottechilsung.co.kr	서울
대상(주)	전분, 소스, 육가공품 등	www.daesang.co.kr	서울
(주)오뚜기	라면, 수산가공품 등	www.ottogi.co.kr	경기
(주)농심	라면, 마카로니 등 면류	www.nongshim.com	서울
롯데푸드(주)	빙과류, 육가공품 등	www.lottefoods.co.kr	서울
(주)파리크라상	빵류 제조업	https://www.pariscroissant.co.kr/	경기
오비맥주(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www.ob.co.kr	서울
서울유유협동조합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www.seoulmilk.co.kr	서울
(주)삼양사	설탕, 제분 등	www.samyangcorp.com	서울
하이트진로(주)	소주, 맥주 등 주류	www.hitejinro.com	서울
(주)동원F&B	수산가공품, 유제품 등	www.dongwonfnb.com	서울
롯데제과(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lotteconf.co.kr	서울
동서식품(주)	커피 가공업	www.dongsuh.co.kr	서울
(주)한국인삼공사	인삼식품 제조업	www.kgc.co.kr	대전
매일유업(주)	유제품, 커피조제품 등	www.maeil.com	서울
코카콜라음료(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www.ccbk.co.kr	경남
(주)농협사료	배합 사료 제조업	www.nonghyupsaryo.co.kr	서울
(주)동원홈푸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www.dwhf.co.kr	서울
대한제당(주)	설탕	www.ts.co.kr	인천
남양유업(주)	유제품, 커피조제품 등	company.namyangi.com	서울
(주)한국야쿠르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www.hyfresh.co.kr	서울
(주)SPC삼립	빵류 제조업	www.spcsamlip.co.kr	서울
(주)팜스코	배합 사료 제조업	www.farmsco.com	서울
(주)빙그레	빙과류, 유제품, 커피조제품	www.bing.co.kr	경기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배합 사료 제조업	www.cargillanimalnutrition.co.kr	경기
(주)하림	육가공품	www.harim.com	전북
(주)삼립식품	빵, 베이커리 등	www.spcsamlip.co.kr	경기
해태제과식품(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ht.co.kr	충남
(주)오리온	베이커리, 과자류 등	www.orionworld.com	서울
(주)사조해표	동식물성 유지류	hp.sajo.co.kr	서울
(주)크라운제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crown.co.kr	서울
(주)사조대림	수산가공품	dr.sajo.co.kr	서울
대한제분(주)	제분 등 곡물가공품	www.dhflour.co.kr	서울
한성기업(주)	수산가공품	www.hsep.com	부산
삼양식품(주)	라면, 마카로니 등 면류	www.samyangfood.co.kr	서울
사조씨푸드(주)	수산가공품	sf.sajo.co.kr	서울
샘표(주)	간장, 된장 등 장류	www.sempio.com	서울
cj씨푸드(주)	수산가공품	www.cjseafood.net	경기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

4.2 관련 협회

협회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식품산업 정보, 식품안전 교육, 정부 시책 수립 지원, 수출 지원 등
한국유가공협회	www.koreadia.or.kr	유가공업과 낙농업 발전, 소비 확대, 원유 및 유제품 수요 개발, 수출 지원 등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khsa.or.kr	정책연구 및 건의, 대국민 홍보, 정부 위탁사업 등
한국쌀가공식품협회	www.krfa.or.kr	가공용 쌀 수급관리, 쌀 소비촉진 및 산업 진흥, 조사 연구 등
한국주류산업협회	www.kalia.or.kr	주류산업 진흥, 조사 연구, 대국민 홍보 등



KOTRA 20-13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식품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작성	KOTRA 투자홍보팀
발행일	2020년 2월			협조	산업연구원 이준 (www.kiet.re.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문의처	투자홍보팀 김소선 (02-3460-7840)
전화	02-1600-7119 (대표)			ISBN	979-11-6490-288-0 (95320)
홈페이지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